

# 경찰, '지하철 시위' 전장연 24명 송치

##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전장연 시위 재개에 8개 기동대 배치

서울 도심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과거 불법시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장연 관계자 24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간담회에서 "총 30건 29명 중 27명은 조사를 마쳤다. 24명은 송치했고, 나머지

는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업무방해, 기차·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전장연 회원 1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후 7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이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벌이며 지하철 열차 운영을 지연시키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고발된 사람도 있다"며 "(조사가) 남은 2명도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2021년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개최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도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개최했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

교통공사 직원들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탑승을 제지하고 퇴거를 요청하면서 지하철 탑승에는 실패했다.

이에 전장연 관계자들은 오전 9시 10분께부터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전장연 선전전에 대비하기 위해 오전에만 8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오후에는 2개 기동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1개 기동대는 약 60명이다.

서선욱기자



담양소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결산보고회 개최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 팀장, 센터장, 구조대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결산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진도소방, 2023년 계묘년 시무식 개최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2023년 계묘년을 맞아 도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힘쓰고 더 나은 한해로 도약하기 위해 2일, 시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광양경찰, 2022년 4분기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와 안보자문협의회(회장 김석기)는 회원 27명 등 총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광양=김현근기자



광주 광산구청-제1전비, 대설 피해 농가 돕기 '구슬땀'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제1전투비행단 장병 등 30여 명과 함께 대설 피해를 입은 삼도동 죽산마을 농가를 찾아 비닐하우스 정비 등 '긴급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임형택기자



광주 남구청,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사업' 우수기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신체활동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최이슬기자



광주전남지방방위청, 육군 제31보병사단 방문

광주전남지방방위청(청장 김용우)은 육군 제31보병사단을 방문해 병역이행 응원 메시지를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 한파 속 '파당'...보폭 20% 줄이고 넘어져도 '당황' 금물



연초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면서 낙상사고의 위험이 커졌다.

특히 노인들은 낙상사고를 당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평소보다 보폭을 20%가량 줄여 걷고 낙상사고를 당해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친 부위를 확인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 2일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4일까지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까지 아침 기온이 중부 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은 영하 10도 내외,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의 경우 영하 15도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밖에서는 한파와 눈으로 길이 미끄러워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고, 실내에서도 위험은 도사린다. 한국소

비자원이 2018~2021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욕실, 계단, 문턱과 같은 집 안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낙상사고는 62.7%를 차지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뼈가 약해 낙상사고로 피해를 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뼈를 만드는 능력이 감소해 뼈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노인 낙상의 5~15%는 골절로 이어진다. 뼈가 약한 노인들은 낙상으로 고관절(엉덩이 관절), 척추, 손·발목 등에 골절이 잘 발생한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근육량이 감소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척추가 골절되면 대부분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지만 인대 손상이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엉덩이뼈 골절인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수술을 할 경우 과

## 매서운 한파 4일까지 이어질 전망 노인, 뼈 약해 낙상피해 커질 수도 가벼운운동·스트레칭으로 근력강화 보폭 20% 줄이고 무릎 굽혀 천천히 낙상 시 당황 말고 다친부위 살펴야

다출혈,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 다치는 손목의 경우 뼈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분쇄 골절 등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낙상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근력을 키우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낙상사고를 당할 경우 뼈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신발 굽은 낮은 것으로 밟았을 때 너무 높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늘진 곳보다는 햇볕이 드는 쪽으로 걷는 것이 좋고, 평소보다 보폭을 10~20% 줄이고 무릎을 살짝 굽혀 천천히 걸어야 안전하다. 노두현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보폭을 넓히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커진다"면서 "넓어진 보폭만큼 몸이 위아래로 더 크게 움직이게 되는데, 전체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 진폭이 커지면서 충격이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실외에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지팡이나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진정제나 우

울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 낙상 사고율이 50% 증가하기 때문에 외출에 주의해야 한다.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부족, 식욕 부진, 근력 감소, 인지저하 등 다양한 요인이 낙상 위험에 영향을 미쳐서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판을 깔고 세면대, 변기, 욕조 주위에 손잡이를 설치해 미끄러짐을 예방해야 한다.

낙상사고를 겪었다면 제대로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황해서 급하게 일어나려 하지 말고 다친 곳은 없는지 먼저 살펴본다. 옆으로 몸을 돌려 위쪽에 있는 다리를 구부린 뒤, 양 팔꿈치 또는 양손으로 몸을 일으킨다. 의자나 다른 움직이지 않는 튼튼한 기구에 양손을 올리고 몸을 당겨 무릎을 굽는다.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힘이 좋은 쪽 다리를 앞으로 놓고 지탱해 천천히 일어난다.

만약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골절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통증이 없고 편한 자세로 누워 119에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김재환기자



교실이 공금해요 대구지역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2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 연초 만취운전하다 경계석 들이받고 잠든 30대 입건

새해 둘째 날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자던 30대가 시민 신고로 들미가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술을 마시고 자가용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3분께 광주 북구 장등동 도동고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갖길 경계석을 들이받은 직

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고, 이 광경을 지켜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귀갓길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슬비기자

## 담양·무안서 부주의 추정 화재 잇따라 발생

새해 첫 날 전남지역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랐다.

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2분께 담양군 대덕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목조건물 37.3㎡를 태우고 149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진화됐으며 주민 등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아궁이에서 장작을 태우던 중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붙어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무안군 정계면 조림식 패널에서 불이나 60㎡를 태우고 7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불씨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화원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겨울철 날씨가 추워 시골 주택 아궁이 등에서 장작 등을 태우던 중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붙는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불을 피우기 앞서 주변의 벗짚, 종이 등을 먼저 치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담양=박종영기자